

방송문장의 억양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 명사구를 중심으로 -

김경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Intonation of News Sentences - with focus of Korean Noun Phrase -

Kim, Kyung-Hwa(Seoul National University)
funlove73@hanmail.net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experimental explanation of Intonation of news sentences with focus on the Korean noun phrase, pronounced by announcers. For this, with a basic form as ‘__ case particle + __adnominal ending + Noun’ which is a common structure in these sentences, we classified NPs according to the added constituents and examined their intonation. And with examining the connection or the breaking of intonation patterns, we described the relation between neighbouring words which build "a rhythmic unit".

1.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낭독체 문장 가운데 방송문장의 억양의 형태와 문법 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룰 문법 구조는 방송문장에 자주 나타나는 “(체언+격조사)+(용언+관형사형어미)+명사”의 구조이다.

억양을 논의하기 위한 리듬단위로써는 이현복(1964)의 ‘말토막’ 개념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말토막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 1) 말토막 구성 음절수와 어절수,
- 2) 이웃하는 두 어절의 의미적 친밀도
- 3) 이웃하는 두 어절의 문법적 친밀도
- 4) 초점
- 5) 화자의 발화속도

2.1. 실험 자료 및 분석

실험 자료는 KBS 한국어연구회에서 펴낸 ‘표준 발음과 낭독’의 뉴스문장과 KBS, SBS 라디오 뉴스에서 해당 명사구를 포함한 87개의 실험문장에서 관찰된 131개의 명사구를 대상으로 했다.

131개의 명사구를 기본형 외에 격조사의 수에 따라, 격조사와 관형사형 어미가 명사 앞에 놓이는 순서에 따라, 또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1. 기본형 : (체언+격조사) + (용언+관형사형 어미) + 명사
예) 수사권 독립에 관한 입장 발표
2. (체언+격조사) + (체언+격조사) + (용언+관형사형 어미) + 명사
예) 방송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전략할 가능성
3. (체언+격조사 3개 이상) + (용언+관형사형 어미) + 명사
예) 한국통신이 파업을 적극적으로 유보하는 등
4. (용언+관형사형 어미) + (체언+격조사) + (용언+관형사형 어미) + 명사
예) 특별한 안화물질이 없었던 점
5. 1-4의 형태의 2회 이상 반복 구조
예) 두 자매가 중화상을 입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이 글은 김경화(1999)를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조.

6. 기타

실험은 각 명사구를 구성하는 음절의 피치(F₀) 값을 측정하고 청취적으로, 피치곡선의 변화 형태로 억양의 끝감이 지각되는 곳에 말토막 경계를 부여하였다.

분석은 Kay 사의 CSL 과 Multi-Speech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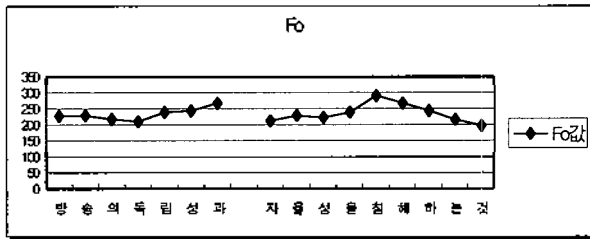
3.1. 연결조사, 연결어미가 첨가되는 형태

전체적으로 연결조사와 연결어미가 첨가된 형태에서는 대개 연결조사와 연결어미가 오는 경우 그 뒤에 말토막 경계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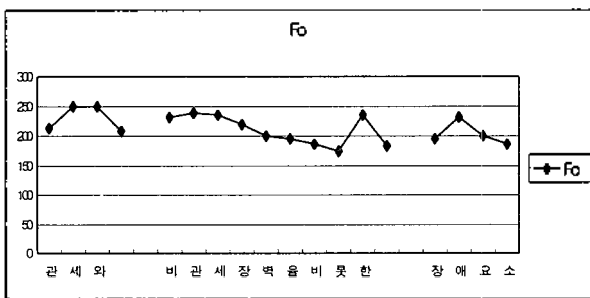
3.1.1. 연결조사

연결조사 뒤의 격조사 어절은 대개 그 다음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를 포함한 어절과 하나의 말토막을 구성하였다.

<그림 1> 방송의 독립성과 /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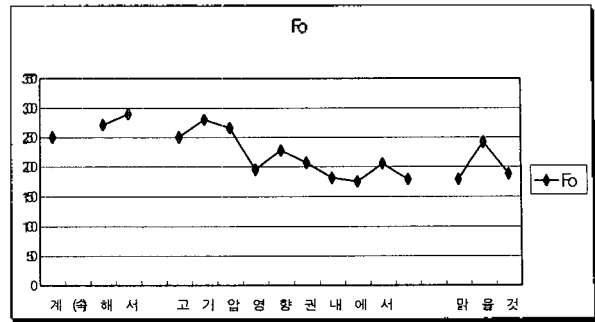
<그림 2> 관세와 /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 장애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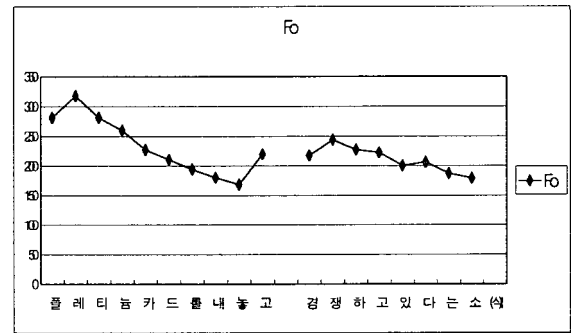
3.1.2. 연결어미

이 경우는 주로 연결어미의 뒤에서 말토막 경계가 생겼다.

<그림 3> 계속해서 / 고기압 영향권 내에서 / 맑을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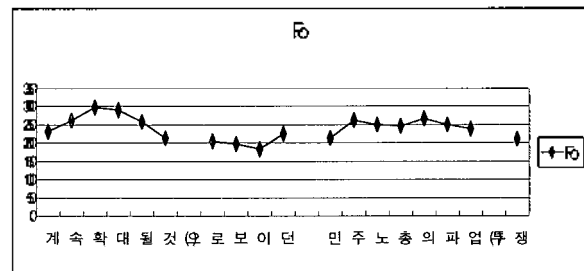
<그림 4> 플래티넘카드를 내놓고 /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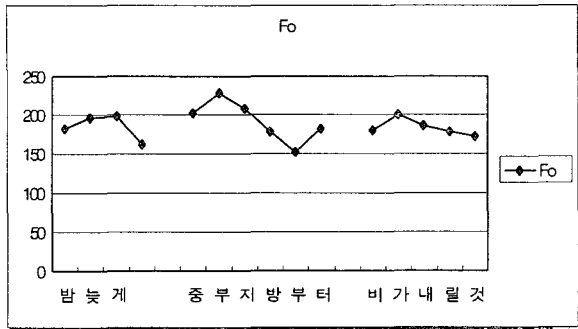
3.2. 부사어가 첨가되는 형태

부사어가 바로 앞 또는 뒤의 어절을 수식할 경우에는 그 어절과 하나의 말토막을 구성하였고, 부사어가 명사구의 처음에 위치하여 명사구 전체를 수식할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말토막을 형성하였다.

<그림 5>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던 /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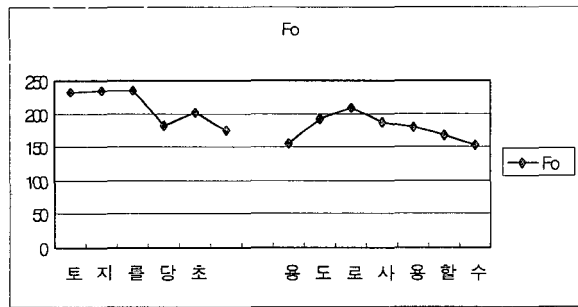


<그림 6> 밤늦게 / 중부지방부터 / 비가 내릴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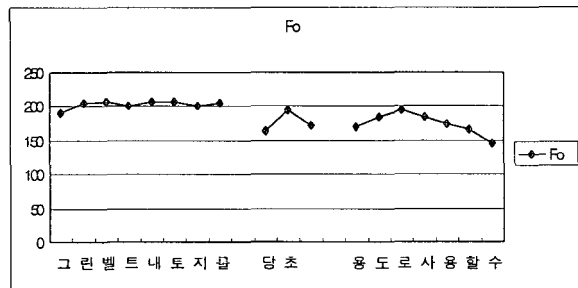


그리고, 동일한 부사어가 첨가되는 경우라도, <그림 7>에서는 앞 어절의 음절수가 적기 때문에 이 어절과 함께 한 말토크를 형성하지만, <그림 8>에서는 앞 어절의 음절수가 많으므로 부사어 자체가 하나의 말토크를 독립적으로 형성했다. 따라서, 음절수가 말토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7> 토지를 당초 /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림 8> 그린벨트내 토지를 / 당초 /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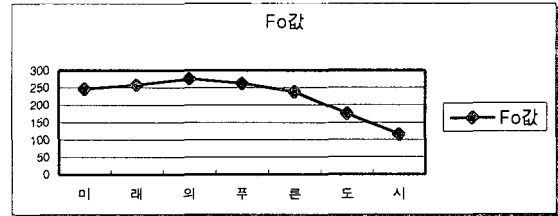


3.3. 하나의 말토크를 이루는 명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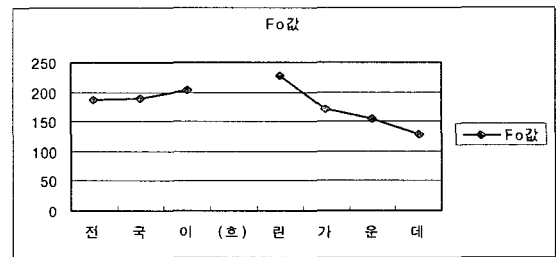
명사구 전체가 하나의 말토크를 형성하는 경

우는 수식 받는 명사가 의존 명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전체적으로 명사구를 구성하는 음절수가 적었다.

<그림 9> 미래의 푸른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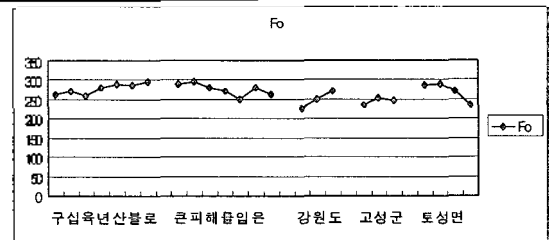
<그림 10> 전국이 흐린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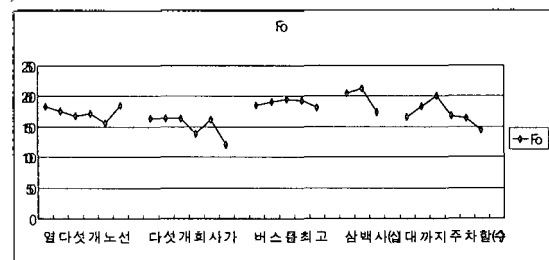
3.4. 복합명사의 억양 형태

명사+명사의 복합명사의 경우는 이 명사가 각기 다른 말토크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화자가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각 단어를 또박또박 끊어서 발화했기 때문이다.

<그림 11> 96년 산불로 / 큰 피해를 입은 / 강원도 / 고성군 / 토성면



<그림 12> 열 다섯 개 노선 / 다섯 개 회사가 / 버스를 최고 / 삼백 사십대까지 주차할 수 (있어)



4.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 방송문장의 억양에 관하여 명사구를 대상으로 리듬단위인 ‘말토막’과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명사구에 연결조사와 연결어미가 포함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뒤에 말토막 경계가 왔다.

부사어가 첨가된 경우는 앞 뒤 어절의 음절수와 부사어가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서 말토막의 형성이 달라졌다.

또, 전체적으로 음절수가 적은 경우는 명사구 전체가 하나의 말토막을 구성하였고, 복합명사는 명사가 각각 말토막을 형성하였다.

만일 피실험자를 아나운서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명사구 외의 다른 문법구조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된다면 문법 구조에 따른 리듬단위의 형성에 대하여 보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 김경화(1999), 한국어 명사구의 억양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방송문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선미(1997), 한국어의 리듬 단위와 문법 구조 음성 합성에서 리듬 구현의 자연성 향상을 위한 음성·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성철재(1998), 한국어 낭독체 담화문의 운율적 특성, 제 15 회 음성통신 및 신호처리 워크샵.
- 지민재(1993), 방송 언어의 억양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한국어 연구 논문」,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